

사회적 지지가 이주여성의 행복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매개효과

남 순 현[†]

경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가 이주여성의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주여성 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동아시아 5개국 225명을 유목적 편의표집하였다. AMOS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와 고국친구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감사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시부모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한국친구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감사와 마음의 빛은 배우자와 고국친구의 지지가 이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만,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감사와 보답은 배우자와 고국친구의 지지가 행복과 한국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5개 민족의 모형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대상별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이주여성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 지지, 감사, 마음의 빛, 보답, 행복, 한국생활 적응

[†] 교신저자 : 남순현, 경북대학교 복지행정학과, 남양주시 진접읍 경북대로 425

Tel : 031-570-9845, E-mail : shnam@kbu.ac.kr

2018년 12월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인 236만 7,707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에 달했다(법무부, 2019).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한국인의 배우자이고, 한국인의 어머니(아버지)인 결혼 이민자는 2018년 12월 기준 159,206명으로 전월 158,600명보다 606명 증가하였고, 2017년 155,457명보다는 2.4% 증가하였다(법무부, 2019). 국적별로는 중국 36.9%(한족 58,706명, 조선족 21,894명), 베트남 26.7%(42,460명), 일본 8.6%(13,738명), 필리핀 7.4%(11,836명) 순이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은 278,036 가구로 추정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주변화된 남성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 간의 결혼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인구수출국에서 인구수입국으로 변모하였고, 이주여성의 증가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문제는 사회갈등과 통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임에 틀림없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이주자의 적응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Meadows, Kaslow, Thompson & Jurkovic, 2005; Sherraden & Martin, 1994; Tran, 1994). 사회적 지지는 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며(Cohen & McKay, 1984),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Brannan, Biswas-Diener,

Mohr, Mortazavi, & Stein, 2012). 아울러 격려, 감정적 안정감, 친밀감, 사회적 수용도와 친밀한 관계 및 상호작용은 감정적 측면(Lyons, 2002)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면에서도 이주여성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Chib, Wilkin, & Hua, 2013).

가족, 친구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고, 이주여성은 그들의 사회적 지지에 감사한다. 감사는 제공받는 도움이나 혜택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이다(Emmons & Crumpler, 2000). 감사는 호의를 베푼 사람의 이타적 노력을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반영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감적 정서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서이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감사는 만족감, 행복감,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킨다. 반면에 우울, 걱정, 질투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다(Emmons & McCullough, 2003; Emmons & Shelton, 2005;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따라서 개인의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유능감을 주며, 일상생활을 잘하게 한다.

감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정서(emotion), 태도(attitude), 도덕성(morality), 습관(habit), 성격특성(character trait), 대처반응(coping response) 등의 다양한 범주로 개념화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서와 관련된 개념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Emmons & Crumpler, 2000). 다시 말해서 감사는 호의를 베푼 대상으로부터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받는 수혜자가 됨을 인식할 때 경험하는 정서 또는 호의를 베푼 대상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특정 행동양식인 것이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친사회

적 행동에서 감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일상 생활의 적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감사를 많이 경험하고 표현할수록 만족감, 행복감,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상승하고, 우울, 불안, 걱정, 질투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감소한다(Emmons & McCullough, 2003;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또한 비교적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특성변인으로써 감사는 호감성, 행복감, 낙관성, 희망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신경증, 질투심, 물질주의, 자기애적 성격과는 부적 상관을 이룬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McCullough 등(2002)과 Lazarus와 Lazarus(1994)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성향은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한다. 감사는 수혜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고마움을 반영하고자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주여성은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빛을 졌다는 느낌을 갖는다(Watkins, Scheer, Ovnick, & Kolt, 2006)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는 받는 것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이지만, 빗짐의 정서는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Emmons & Shelton, 2005).

감사와 마음의 빛은 수혜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감사와 빗짐은 모두 도움을 받은 후 나타나는 정서이며, 도움제공자에게 보답행동을 하는 이유가 된다(Greenberg & Shapiro, 1971). 그러나 개인이 이를 경험하는 맥락은 매우 상이하다. 감사는 긍정적인 정서인 반면에(Mayer, Gomborg-

Kaufman, Blainey, & Salovey, 1991), 빗짐은 갚아야 하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상태,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 그 정서를 줄이기 위해 여러 단서에 예민해지는 상태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Greenberg & Westcott, 1983). 빗짐은 감사한 대상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되갚아야 한다는 편협된 마음 자세를 갖게 한다(Greenberg, 1980). 이는 상대가 보답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할수록, 감사의 정서는 줄어들고, 마음의 빛의 정서는 증가하며, 보답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만이 가중된다. 따라서 감사가 행복한 삶의 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Watkins et al., 2003), 이주여성의 감사한 마음 이면에는 마음의 빛을 느끼고, 감사한 대상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감사와 마음의 빛을 느끼는 정서가 반드시 상대가 보답을 기대하는 정도나 보답수준에 비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Tsang, 2006),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사회적 지지에 감사하고 마음의 빛을 느끼는 동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관계의 미덕으로서 감사는 도움을 보답하는 행동과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을 불러일으킨다(Emmons & Crumpler, 2000). 또한 Tsang(2006)과 Watkins 등(2006)의 연구에서 도움제공자가 보답을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도움 수혜자가 감사를 느끼는 정도와 빗짐을 경험하는 정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대상에 따른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지지는 이주여성의 감사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행복

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성호(201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복을 촉진시키는 변인들의 영향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Diner, Lucas, & Oishi, 2002). 이런 결과에 대해 Watkin, Grimm과 Kolts(2004)는 적응이나 부적응적인 심리과정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는 매개, 중재, 조절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과 같은 심리적 과정은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행복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실제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5개국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와 지역의 다문화기관의 지지가 이주여성의 행복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를 보이는지 혹은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배우자, 시부모, 자녀, 고국과 한국친구 및 지역사회 다문화기관으로 세분화시켰다. 그 이유는 이주여성이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빚짐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대상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외에도, 지지대상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때문이다. 가족지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hen & Syme, 1985; House & Kahn, 1985).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사회적 고

립감과 우울을 감소시킨다(Cutrona, 2004). 또한 친구지지는 사회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등 긍정적 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써(소영원, 2006), 친구는 대인관계나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이미애, 정희옥, 2004). 특히 한국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고국친구는 친밀감과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한국친구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반면에, 고국을 떠나 낮은 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다문화기관은 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강습은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가족, 친구와 기관의 지지가 모두 이주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지가 이주여성의 행복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시부모, 자녀, 고국친구와 한국친구 및 기관의 지지가 이주여성의 행복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이주여성이 느끼는 감사 정서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빛,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개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배우자, 시부모, 자녀, 고국친구, 한국친구와 기관의 지지는 감사, 행복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배우자, 시부모, 자녀, 고국친구, 한국친구와 기관의 지지가 행복과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은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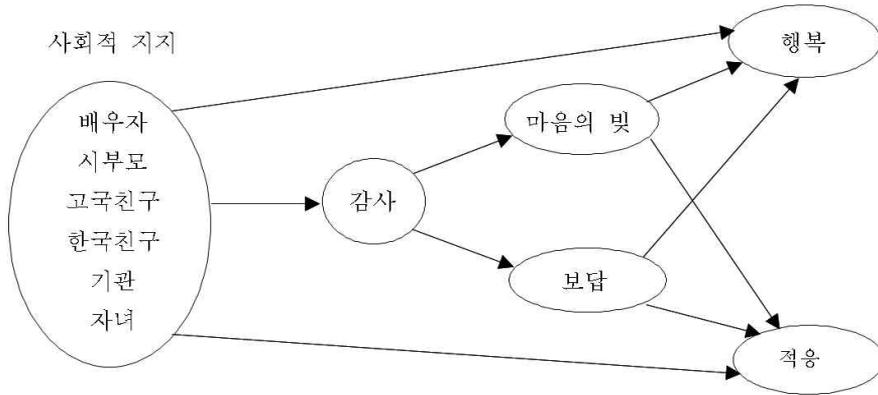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개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아시아 5개국 이주여성 225명이다.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국적을 베트남, 일본, 중국, 조선족, 필리핀의 동아시아 5개국으로 제한한 것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중국 36.9%(한족 58,706명, 조선족 21,894명), 베트남 26.7%(42,460명), 일본 8.6%(13,738명), 필리핀 7.4%(11,836명)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 2019). 본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의 연령은 19세부터 54세까지 다양했다. 평균연령 33.16세(SD=8.93)이고, 평균 거주기간은 76.59개월(SD=64.52)이었다. 이주여성의 결혼 기간은 평균 78.95개월(SD=65.47)로 2개월에서 최대 24년 7개월까지였다. 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은 반드시 결혼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주여성이 결혼을 하

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국에서 먼저 결혼을 하고 잠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결혼경로는 지인소개 68명(31.8%), 종교 58명(27.1%), 중개업소 42명(19.6%), 연애 37명(17.3%) 순이었다. 자녀수는 평균 1.86명(SD=0.96)이었다. 이주여성의 자녀수는 1명에서 5명까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1명(42.9%)이나 2명(37.3%)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82명, 36.8%), 다음으로는 중졸 36명(16.0%), 대졸 35명(15.6%), 대학원졸 이상 11명(4.9%), 초등학교졸 6명(2.7%) 순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은 대부분 전업주부였고(141명, 63.2%), 직업을 가지고 있는 36.3%의 이주여성 또한 전일제보다 외국어강사(13.5%)나 단순노동(4.9%)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주여성은 부부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79.8%), 시부모(17.5%)나 친정부모(0.9%)를 모시고 살고 있는 이주여성도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변 인	명(%)
연령	평균 33.16세 (SD= 8.93, Range 19세-54세)	
거주기간	평균 76.59개월 (SD=64.52, Range 2개월-293개월)	
결혼기간	평균 78.95개월 (SD=65.47, Range 2개월-297개월)	
국적	베트남	40명 (17.9%)
	일본	47명 (21.1%)
	조선족	50명 (22.4%)
	중국	40명 (17.9%)
	필리핀	46명 (20.6%)
결혼형태	연애	37명 (17.3%)
	중개업소	42명 (19.6%)
	종교	58명 (27.1%)
	유학	2명 (0.9%)
	지인소개	68명 (31.8%)
	기타	7명 (3.3%)
자녀수	1명	54명 (42.9%)
	2명	47명 (37.3%)
	3명	17명 (13.5%)
	4명	5명 (4.0%)
	5명	3명 (2.4%)
교육수준	무학	1명 (0.4%)
	초등학교졸	6명 (2.7%)
	중학교졸	36명 (16.0%)
	고등학교졸	82명 (36.4%)
	전문대졸	27명 (12.0%)
	대졸	35명 (15.6%)
	대학원졸	11명 (4.9%)
직업유무	유	81명 (36.3%)
	무	142명 (63.7%)
직업형태	전업주부	141명 (63.2%)
	외국어강사	30명 (13.5%)
	한국어강사 및 아동양육지도사	5명 (2.2%)
	판매 / 서비스직	3명 (1.3%)
	생산직	5명 (2.2%)
	전문/프리랜서(번역, 통역 등)	9명 (4.0%)
	자영업	4명 (1.8%)
	농업/수산업/축산업	2명 (0.9%)
	사무직	2명 (0.9%)
	기능/숙련공	3명 (1.3%)
	일반직업직	11명 (4.9%)
	기타	8명 (3.6%)
	동거가족	부부만 동거
남편+자녀 (남편 자녀포함) 동거		97명 (42.6%)
부부+자녀+시부모 동거		39명 (17.5%)
부부+자녀+친정부모 동거		2명 (0.9%)
기타 (형제, 친척 동거)		4명 (1.8%)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 모임 등의 협조를 구하여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설문 실시 전에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와 이주여성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의 내용 등을 사전 교육하였고, 기관의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와 이주여성은 눈덩이표집과 유목적 편의표집으로 이주여성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동아시아 5개국 이주여성의 국적을 고려하여 5개 국어로 번역하여 동아시아 5개국 이주여성 300명에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237부였고, 무응답이 많거나 편포된 응답이 많은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2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Zimmer, Dahlem, Zimmer과 Farley(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MSPSS))’를 사용하였다. MSPSS는 가족, 친구, 의미있는 타인에 대한 지지를 묻는 각 4문항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시부모, 자녀, 한국에 사는 고국친구, 한국친구, 지역민이나 지역의 관련 기관의 지지로 6개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대상에게 사용한 문항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다”,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최선을 다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준다” 등이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Likert식 7점 척도로, 본 연구

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각 하위대상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배우자 지지에서 .86, 시부모 지지에서 .93, 자녀 지지에서 .91, 한국에 사는 고국친구 지지에서 .89, 한국친구 지지에서 .87,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지에서 .88이었다.

감사 척도

본 연구에서는 McCullough, Emmons와 Tsang (2002)이 개발한 감사성향척도 한국판(K-GQ-6;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 삶에서 감사할 거리들이 매우 많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세상을 둘러볼 때,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7점 척도이다. 미국판 대학생집단의 합치도는 .82이고, 한국판 대학생집단의 합치도는 .85였으나,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7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마음의 빛 척도

본 연구에서는 Naito, Wangwan과 Tani(2005)의 방식에 따라, 빛진 느낌, 보답해야 함, 감사, 마음이 불편함의 4문항을 척도에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도움 받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예,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알림장을 읽어주는 상황)를 주고, 각 문항이 나타내는 방식(예, 주어진 시나리오 상황에서 빛진 느낌이 듭니까?)으로 마음의 빛을 느끼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72였다.

보답 척도

본 연구에서 보답척도는 Watkins, Woodward, Stone과 Kolts(2003)가 개발한 Gratitude

Resentment and Appreciation Test (GRAT) 개정판 단축형(Revised GRAT and Short Form GRAT)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로 세상이 나에게 빛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 준 것에 감사한다” 등의 보답과 관련된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9점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행복 척도

본 연구에서는 Kozma와 Stones(1980)가 개발한 행복척도(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 MUNSH)를 사용하였다. 평가자는 10개의 정서와 14개 경험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24문항 중에서 정서를 묻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세상이 온통 내 것 같다”, “내 삶은 활기가 넘친다”, “나는 행운아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한국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허춘영(1999)이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적응상의 문제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한국유학생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점 척도 32문항 중에서 정진경과 김재우(2005)가 사용한 17문항만을 이주여성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생활 적응척도는 “나는 믿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 “나는 언어문제로 인하여 힘들다”, “나는 외로움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

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SPSS 20.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분포의 정상성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통해서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the structural equation)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검증시, Kline(2005)과 홍세희(2000)가 추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즉 절대 적합도지수 χ^2 값, RMSEA와 상대 적합도지수 CFI, TLI, NFI를 참고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시,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의 수가 5개 이상 많은 변인들에 대해서는 문항 꾸러미 기법(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수를 조정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셋째, 본 연구에서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측치는 연구모형 검증 전 변인들에 대한 무응답 결측치를 통계적으로 제어한 후, 연구모형분석 시 Arbuckle(1996)이 제안한 AMOS 통계프로그램의 FIMI(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결 과

사회적 지지, 감사, 마음의 빛, 보답, 행복과

적응 간의 관계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의 하단과 같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분포의 정상성(DeCarlo, 1997)을 가정할 수 있었다.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의 상단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감사, 마음의 빛, 보답,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는 .31, 고국친구 지지는 .31, 한국친구 지지는 .23, 기관의 사회적 지지는 .23으로 감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감

사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는 .25, 시부모 지지는 .14, 고국친구 지지는 .15, 한국친구 지지는 .14로 마음의 빛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마음의 빛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는 .22, 시부모 지지는 .17, 고국친구 지지는 .26, 한국친구 지지는 .24, 기관의 사회적 지지는 .21로 보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보답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는 .20, 시부모 지지는 .33, 고국친구 지지는 .21, 한국친구 지지는 .20, 기관의 사회적 지지는 .14로 행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행복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

표 2.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사회적 지지						감사	마음의 빛	보답	행복	적응
	배우자	시부모	자녀	고국친구	한국친구	기관					
사회적 지지											
배우자	1.00										
시부모	.29**	1.00									
자녀	.08	-.05	1.00								
고국친구	.28**	.33**	.28**	1.00							
한국친구	.32**	.28**	.23**	.50**	1.00						
기관	.19**	.25**	.19**	.52**	.60**	1.00					
감사	.31**	.11	.04	.31**	.23**	.23**	1.00				
마음의 빛	.25**	.14*	.00	.15	.14*	.08	.21	1.00			
보답	.22**	.17**	-.00	.26**	.24**	.21**	.61	.24**	1.00		
행복	.20**	.33**	.01	.21**	.20**	.14*	.20	.34**	.32**	1.00	
적응	.11	.04	.11	.12	.31**	.14*	.02	.06	.16*	.03	1.00
평균	18.41	15.23	16.39	16.76	15.28	15.11	22.96	12.67	22.02	31.36	43.66
표준편차	4.23	5.68	6.83	4.49	4.01	4.20	4.03	3.22	4.30	4.50	11.70
왜도	-.34	-.89	-1.39	-.43	.14	.11	-.06	-.15	-1.36	.22	.03
첨도	-.24	1.01	1.24	1.06	.35	.76	-.63	-.05	5.43	.54	-.27

* $p < .05$, ** $p < .01$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한국친구 지지는 .31, 기관의 지지는 .14로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행복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여성의 감사와 마음의 빛, 보답, 행복 및 한국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사는 마음의 빛과 .21, 보답과 .61, 행복과 .20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주여성의 감사한 마음은 마음의 빛, 보답, 행복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는 한국생활 적응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이주여성의 마음의 빛과 보답,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마음의 빛은 보답과 .24, 행복과 .34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마음의 빛은 보답과 행복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음의 빛은 한국생활 적응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의 보답과 행복, 한국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주여성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행복과 .32, 한국생활 적응과 .16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이주여성의 보답은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한국생활 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모형 검증

사회적 지지가 이주여성의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검증해본 결과는 그림 2와 표 3과 같다.

구조방정식의 세부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그림 2의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hi^2/df(CMIN/df)$ 은 통상적으로 3.0 이하이면 양호, 2.0 이하이면 매우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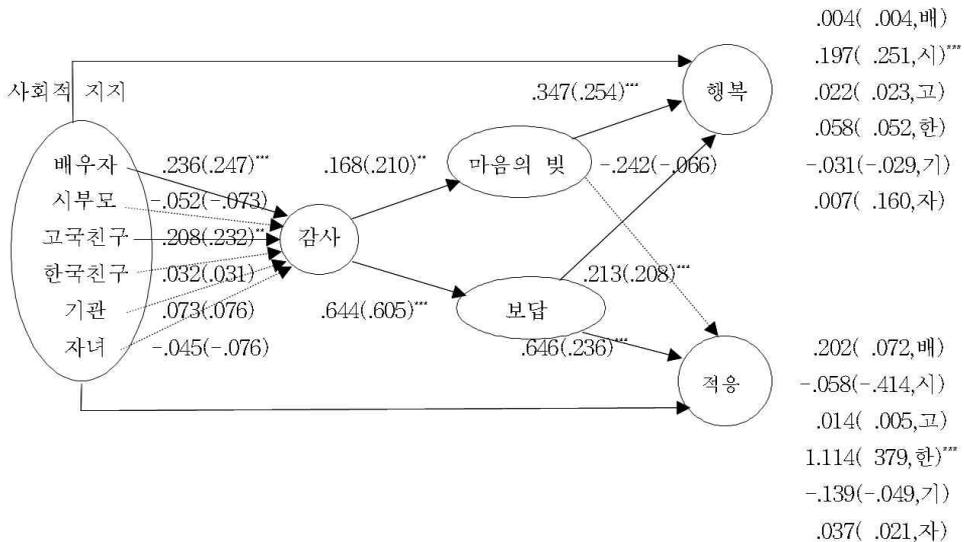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 $p < .001$, ** $p < .01$)

표 3. 모형적합도

χ^2	CMIN/DF	RMSEA	CFI	TLI	NFI
1.526 (<i>df</i> , 16), <i>p</i> =.081	1.526	.048	.983	.943	.957

스러운 모형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χ^2/df (*CMIN/df*) 값이 1.526이므로 매우 만족스런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χ^2/df (*CMIN/df*) 외에도 CFI, TLI, NFI 상대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이면 연구모형은 매우 좋은 모

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상대 적합도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 0.90 이 바람직)는 .983, TLI(TucKer-Lewis Index: ≥ 0.90 이 바람직)는 .943, NFI(Normed Fit Index: ≥ 0.90 이 바람직)는 .957이었다. 따라서, CFI, TLI와 NFI

표 4. 최대우도 모수 추정치

모 수	B	SE	β	t	p
배우자 지지 → 감사	.236	.064	.247	3.707	***
시부모 지지 → 감사	-.052	.048	-.073	-1.083	.279
자녀지지 → 감사	-.045	.038	-.076	-1.162	.245
고국친구 지지 → 감사	.208	.070	.232	2.957	.003
한국친구 지지 → 감사	.032	.082	.031	.384	.701
기관의 지지 → 감사	.045	.065	.076	.698	.485
배우자 지지 → 행복	.004	.068	.004	.062	.951
시부모 지지 → 행복	.197	.051	.251	3.865	***
자녀지지 → 행복	.007	.041	.010	.160	.873
고국친구 지지 → 행복	.022	.075	.023	.299	.765
한국친구 지지 → 행복	.058	.088	.052	.661	.508
기관의 지지 → 행복	-.031	.082	-.029	-.375	.707
배우자 지지 → 한국생활 적응	.202	.189	.072	1.086	.277
시부모 지지 → 한국생활 적응	-.058	.140	-.028	-.414	.679
자녀지지 → 한국생활 적응	.037	.112	.021	.329	.742
고국친구 지지 → 한국생활 적응	.014	.206	.005	.067	.946
한국친구 지지 → 한국생활 적응	1.114	.240	.379	4.664	***
기관의 지지 → 한국생활 적응	-.139	.226	-.049	-.616	.538
감사 → 마음의 빛	.168	.052	.210	3.221	.001
감사 → 보답	.644	.057	.605	11.364	***
마음의 빛 → 행복	.347	.082	.254	4.241	***
보답 → 행복	.213	.063	.208	3.383	***
마음의 빛 → 한국생활 적응	-.242	.224	-.066	-1.078	.281
보답 → 한국생활 적응	.646	.173	.235	-3.383	***

모두 1에 가까운 수용범위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절대지수 RE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5 가 바람직)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048로 수용범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매우 좋은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배우자 지지와 고국친구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47, \beta=.232, p<.01$), 시부모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251, p<.01$), 한국친구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79, p<.01$). 즉, 이주여성에게 배우자와 고국친구의 격려와 지지는 감사한 것이고, 시부모의 사랑은 행복한 것이지만, 한국생활 적응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한국친구인 것이다. 둘째, 이주여성의 감사한 마음은 마음의 빛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10, p<.01$), 보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주여성은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지만,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셋째, 이주여성

의 마음의 빛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beta=.254, p<.01$), 한국생활의 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이주여성의 지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행복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beta=.208, p<.01$), 한국생활 적응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235, p<.01$). 이런 결과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감사한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서 행복감을 주지만, 현실적으로는 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국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효과분해한 후, bootstrapping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효과분해결과, 배우자의 지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마음의 빛 그리고 감사와 보답이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국친구의 지지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마음의 빛 그리고 감사와 보답이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우자의 지지와 고국친구의 지지가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는 감사와 보답만이 간접효과를 보였다. 따라

표 5. 매개효과 Bootstrap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Bias-corrected bootstrapping
	β	SE	β	SE	β	SE	
배우자지지 → 감사 → 마음의 빛 → 행복	.004	.067	.044	.016	.048	.067	(.018, .084)
고국친구지지 → 감사 → 마음의 빛 → 행복	.022	.077	.042	.018	.064	.077	(.014, .086)
배우자지지 → 감사 → 보답 → 행복	.004	.032	.046	.030	.050	.043	(.072, .233)
고국친구지지 → 감사 → 보답 → 행복	.021	.080	.042	.018	.063	.041	(.043, .239)
배우자지지 → 감사 → 보답 → 한국생활 적응	-.072	.070	.038	.015	-.034	.069	(.015, .075)
고국친구지지 → 감사 → 보답 → 한국생활 적응	.005	.080	.096	.016	.081	.079	(.012, .076)

서 각 경로에서 감사와 마음의 빛, 감사와 보답의 각각 팬텀변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배우자의 지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마음의 빛의 매개효과는 bootsrtrap 신뢰구간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와 마음의 빛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국친구 지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마음의 빛의 매개효과에서도 감사와 마음의 빛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배우자 지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보답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국친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보답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와 보답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배우자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보답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국친구가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보답 역시 bootsrtrap 신뢰구간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와 보답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별 비교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 5개 이주여성의 민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족별 각 경로계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beta=.235, p<.1$), 감사와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베트남 이주여성의 감사한 마음은 마음의 빛과 보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414, \beta=.513, p<.01$), 보답만이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242, \beta=.283, p<.1$). 베트남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지원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것이고, 감사해하는 마음은 마음의 빛인 동시에 보답해야 하는 의무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감사한 대상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한국생활에 적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여성은 한국친구의 지지와 자녀의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beta=.337, p<.05, \beta=.229, p<.1$), 지역민과 다문화기관의 지지에 행복해하였으며($\beta=.354, p<.05$), 한국친구의 지지를 통해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2, p<.01$). 일본여성은 감사한 마음을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beta=.469, p<.01$), 마음의 빛에도 행복해하였다($\beta=.370, p<.01$). 다른 민족보다 일본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친구와 자녀에게 가장 감사했고, 힘을 얻었다. 한국에서 다문화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한국인은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큰 힘이였다. 다른 민족과 달리, 일본여성은 감사한 대상에게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고, 마음의 빛조차도 행복해했다. 이는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일본인 고유의 민족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여성은 고국친구의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beta=.339, p<.05$), 배우자와 한국친구의 지지는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beta=.256, p<.1, \beta=.546, p<.01$). 중국여성의 감사한 마음은 마음의 빛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beta=.311, p<.05, \beta=.602, p<.01$), 빛짐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04, p<.05$). 중국여성은 같은 동포와의 친밀한 유대에서 감사함을 느꼈고, 배우자와 한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힘이 되는 존재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여성에게도 감사한 마음은 일본여성처럼, 마음의 빛인 동시에 보은해야 하는 것이었고, 마음의 빛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족간의 차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족 여성은 배우자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지만($\beta=.393, p<.05$), 시부모 지지에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다($\beta=-.380, p<.05$). 그러나 시부모의 지지와 자녀의 지지는 행복감을 주었고, ($\beta=.412, \beta=.344, p<.01$), 고국친구와 기관의 지지는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23, p<.1, \beta=.363, p<.05$). 조선족 여성은 지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하였으며($\beta=.632, p<.01$), 빗집의 정서는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312, p<.01, \beta=.299, p<.05$). 조선족 여성은 배우자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해했지만, 시부모의 지원은 간섭으로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나 자녀의 격려는 행복이었다. 고국친구와 다문화기관의 지지는 한국생활 적응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 조선족 여성에게 지지대상에 대한 감사는 보답인 동시에 마음의 빛이었다. 즉,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고, 한국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계기였다.

필리핀 이주여성은 배우자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beta=.503, p<.01$), 배우자와 시부모의 지지에 행복해하였으며($\beta=.237, \beta=.271, p<.1$), 배우자 지지와 한국친구의 지지를 통해서 한국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다($\beta=.268, \beta=.367, p<.05$). 필리핀 여성은 감사한 사람에게 마음의 빛과 보답의 부담을 가졌으며($\beta=.491, \beta=.726, p<.01$), 마음의 빛은 행

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13, p<.05, \beta=-.354, p<.01$). 반면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은 한국생활 적응에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393, p<.05$). 베트남여성처럼, 필리핀 여성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했고, 배우자와 시부모의 격려에 행복감을 느꼈다. 또한, 배우자와 한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감사한 대상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은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 마음의 빛, 보답의 매개효과를 민족별 비교해본 결과, 중국여성은 고국친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마음의 빛과 고국친구가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보답은 간접효과는 나타났지만, bootstrapped 신뢰구간 범위에서 -.427, .320과 -.474, .282로 모두 0을 포함함으로써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조선족 여성은 배우자 지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보답은 간접효과를 보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부모 지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보답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103, .663). 따라서 조선족 여성에게 시부모 지원은 행복한 것이지만, 동시에 시부모를 잘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었다. 이는 한국여성의 시부모부양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여성은 배우자 지지가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마음의 빛(.034, .634), (.237, .473)과 감사와 보답(-.544, .095)은 간접효과를 보였지만, 유의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배우자 지지가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마음의 빛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필리핀 여성에게 배우자는 진심으로 고마운 사람이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며,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이주여성의 민족별 차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에서 5의 그림과 표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5개국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시부모, 자녀, 고국과 한국 친구 및 기관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과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배우자의 지지와 고국친구의 지지는 감사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주여성이 다른 대상보다도 배우자와 고국 동포를 더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가족의 지지는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ohen & Syme, 1985; House & Kahn, 1985),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서 외로움을 달래준다(Cutrona, 2004). 또한, 본 연구결과는 친구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미애와 정희옥(2004)의 연구를 지지한다.

둘째, 시부모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행복감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과의 갈등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갈등 중 하나다. 다문화가족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성은영과 황순택(2013)은 이주여성이 언어가 잘 안 통하는 시대과의 갈등으로 빈번하게 심한 고부갈등을 초래하고, 심한 스트레스

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시부모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는 이주여성에게 주관적 만족감을 증진시킨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을 준다는 Brannan 등(2012)의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한국친구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격려, 감정적 안정감, 친밀감, 사회적 수용도와 친밀한 관계 및 상호작용을 통한 감정적 측면(Lyons, 2002) 외에, 정보제공이라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hib, Wilkin, & Hua, 2013).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에게 한국인은 직접 접촉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함께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도움은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지지가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이주여성이 기관과 정부의 도움을 당연시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일방적인 동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강요가 아닌 문화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통합을 이루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문화통합적 정부의 정책 외에도, 한국인의 관심 어린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최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인이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본 결과, 모든 경로에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는 이주여성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고, 감사한 마음은 한편으로 마음의 빛이지만 행복한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감사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성향이 낮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지지와 도움에 대해 빛을 졌다는 부담감과 빛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Watkins, Scheer, Ovnick, & Kolt, 2006)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지지의 대상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즉, 이주여성에게 배우자는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고, 감사한 마음만큼 배우자에게 잘해야 한다는 마음은 행복한 것이다.

아울러, 이주여성에게 배우자의 지지는 감사한 것이지만, 보답해야 하는 것이며, 행복한 반면에,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에게 잘해야 한다는 마음은 한국 문화를 빨리 배우고 익히는 원동력인 것이다. McCullough 등(2001)은 감사가 실제적인 사회관계에서 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주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감사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음가짐이다.

고국친구의 지지도 감사한 마음과 빛짐 정서를 낳지만, 이주여성에게 행복감을 준다. 또한, 고국친구의 지지는 감사한 마음 이면에 감사함에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지만, 동시에 행복이고 한국생활 적응에 든든한 버팀목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사회적 지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게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마음의 빛이나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특히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타국에서 고국친구의 보살핌은 감사이고, 행복한 것이다. 따라서 이주 여성은 고국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고, 도와줌에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한국생활 적응에서 고국친구는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민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베트남 여성은 사회적 지지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지만, 감사는 분명 빛짐과 보답해야 하는 것이었고,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은 행복감과 한국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남편의 지지는 베트남 여성에게 직접적인 행복감을 주었다. 일본 여성은 한국친구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고, 정부와 지자체 다문화기관의 지원에 행복해하였다. 또한, 한국친구의 지지에 대한 감사함은 보답해야 하는 의무였다. 중국 여성은 고국친구와의 친밀한 유대에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 남편의 지지와 한국친구의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을 도움을 준다고 지각하였다. 하지만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선족 여성은 남편의 지지에 진실로 감사했고 남편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해하였지만, 시부모의 지지는 간섭으로 여겼다. 감사와 보답의 매개효과 외에도, 시부모와 자녀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고국친구와 기관의 지원은 한국생활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지가 행복과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감사와 마음의 빛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남편의 지지

는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시부모의 지지는 행복에 직접효과만을 나타냈다. 반면에 남편과 한국친구의 지지는 한국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별 차이는 있지만 남편의 지지는 이주여성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고, 행복감과 동시에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시부모의 지지는 이주여성에게 직접적인 만족을 주는 반면, 한국친구의 지지는 한국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정보제공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매개효과가 민족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였지만, 조선족 여성과 필리핀 여성은 남편과 시부모의 지지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마음의 빛으로 보은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한 반면, 베트남 여성의 남편 지지는 직접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화 간 차이와 의사소통방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이주여성의 자국문화 비교와 함께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의 다정함과 다양한 지원은 이주여성에게 깊은 신뢰를 주기 때문에, 감사이고, 행복이며,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따라서 이주여성은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남편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빨리 한국 문화에 적응했다. 또한, 타국에서 고국 동포는 반가움이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 이주 여성은 한국생활에 적응해갔다. 따라서 고국친구에 대한 감사는 보답이고, 마음의 빛이지만, 행복이고,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친구의 지지는 한국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드시 보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여성만이 한국친구의 지지에 감사해했고, 보답해야 하는 의무감이었다. 이는 일본인의 민족성과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지지는 조선족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의한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주여성의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지지의 원천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돌봐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관의 지지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주여성은 정부와 지자체 다문화기관에서 행해지는 정책이나 다문화적응 프로그램 등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비자발적인 강요나 당연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다양하게 배우자, 시부모, 자녀, 고국친구, 한국친구와 기관의 지지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주여성의 주관적 행복감과 한국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이주여성에게 배우자와 고국친구와의 관계가 감사와 빚짐 정서, 보답해야 하는 마음이라면, 시부모와의 관계는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한국친구와의 관계는 정보제공이자 한국 사회와의 소통인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사, 마음의 빛, 보답을 별개의 정서이며, 그 출발점이나 사고 행동경향성도 차이가 있다는 Greenberg(1980)의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감사와 빚짐 정서의 공통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감사와 빚짐 정서가 지니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지지

의 원천에 따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Tsang(2006)의 견해를 지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들이 행복을 촉진시키는 변인들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을 매개변인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감사, 마음의 빛과 보답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그 상이한 양상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주류사회의 국민, 즉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특히 한국에 거주한지 2년 미만의 적응초기 이주여성에게는 한국인이 좋은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와 이주여성의 자국문화 간의 진정한 문화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방적인 동화만을 강요하는 적응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주여성에게 한국인은 중요한 조력자인 동시에 지지자이다. 반면에, 한국인에게 이주 여성은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문화자원으로서 이주여성의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한국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과 달리,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에 대한 이주여성의 지각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적응에만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내적인 심리 역동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정책입안자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자국문화와 심리 내적인 측면이 보다 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으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주여성의 주관적 행복감과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들을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 (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77-190.
- 성은영, 황순택 (2013).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243-256.
- 소영원 (2006).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19년 1월 29일자.
- 여성가족부 (2017).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이미애, 정희옥 (2004).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연구소, 16(17), 123-136.
- 이성호 (2016). 사회적 지지가 판매원의 주관

- 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9(11), 1633-1647.
- 정진경, 김재우 (2005). 차별지각,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유형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2(2), 295-321.
- 허춘영 (1998).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 한쪽, 조선족 유학생 간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rannan, D., Biswas-Diener, R., Mohr, C. D., Mortazavi, S., & Stein, N. (2012). Friends and family,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1), 65-75.
- Chib, A., Wilkin, H. A., & Hua, S. R. M. (2013).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use of mobile phones to seek social support in Singapore. *Information Technologies & International Development*, 9(4), pp-19.
- Cohen, S., & McKay, G.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J. E. Singer, & S. E. Taylo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pp. 253-267), Volume IV. Hillsdale, NJ: Erlbaum.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3-22).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Cutrona, C. E. (2004). A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the social provisions of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992-999.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 S.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463-473).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 Crumpler, C. A. (2000). Gratitude as a human strength: Appraising the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56-69.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389.
- Emmons, R. A., & Shelton, C. M. (2005). Gratitude and the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C. R. Snyder &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459-4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M. S. (1980). A theory of indebtedness. In K. J. Gergen, M. S. Greenberg, & R. H. Wills (Eds.), *Social exchange: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lenum.
- Greenberg, M. S., & Shapiro, S. P. (1971). Indebtedness: An adverse aspect of asking for and receiving help. *Sociometry*, 34(2), 290-301.
- Greenberg, M. S., & Westcott, D. R. (1983). Indebtedness as a mediator of reactions to aid. *New Directions in Helping*, 1, 85-112.
- House, J. S., & Kahn, R. L.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83-108). New York: Academic Press.
- Kozma, A., & Stones, M. J. (198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Development of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happiness scale (MUNSH). *Journal of*

- Gerontology*, 35, 906-912.
- Lazarus, R. S., & Lazarus, B. N. (1994). *Passion and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yons, J. A. (2002). *General strain theory and social support: A study of African Americans*. Unpublished LSU Master's theses. https://digitalcommons.lsu.edu/gradschool_theses/1235.
- Mayer, J. D., Gomberg-Kaufman, S., Blainey, K., & Salovey, P. (1991). A broader conception of mood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100-111.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Meadows, L. A., Kaslow, N. J., Thompson, M. P., & Jurkovic, G. J. (2005). Protective factors against suicide attempt risk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2), 109-121.
- Naito, T., Wangwan, J., & Tani, M. (2005). Gratitude in university students in Japan and Thai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2), 247-263. <https://doi.org/10.1177/0022022104272904>.
- Sherraden, M. S., & Martin, J. J. (1994). Social work with immigrants: International issues in service delivery. *International Social Work*, 37(4), 369-384.
- Tsang, J. (2006). Gratitude and prosocial behaviour: An experimental test of gratitude. *Cognition and Emotion*, 20(1), 138-148.
- Watkins, P. C., Grimm, D. L., & Kolts, R. (2004). Counting your blessings: Positive memories among grateful persons. *Current Psychology*, 23(1), 52-67.
- Watkins, P. C., Scheer, J., Ovnick, M., & Kolt, R. D. (2006). The debt of gratitude: Dissociating gratitude and indebtedness. *Cognition and Emotion*, 20(2), 217-241.
-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D.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its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 431-452.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1차원고접수 : 2020. 01. 21.

심사통과접수 : 2020. 03. 02.

최종원고접수 : 2020. 03. 2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Happiness and Adaptation to Korean Life Among the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Return and Indebted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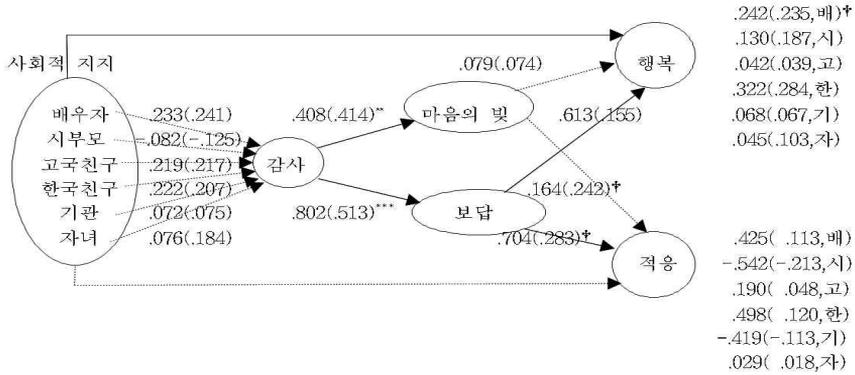
Nam, Soonhyeon

Kyungbuk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inner dynamics that the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undergo in adapting to Korea. When social support affects happiness and adjusting to life in Korea of the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we investigated whether the paper will have direct effects or indirect effects of gratitude, return and indebtedness. This paper, involving 225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from 5 East Asian countries, was conducted from Nov. 15, 2017, to Jan. 30, 2018 using purposive sampling metho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using AMOS 22.0 showed the followings. First, it had a significantly direct effect on the gratitude of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when support from spouses and friends in their home countries. Second, the support of the in-laws on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appiness of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Third, support from Korean friends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adaptation to Korean life. Fourth, only when the support of a spouse and friends in their home affected the happiness of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the gratitude and indebtedness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Fifth, when the support of a spouse and friends in their home affected the happiness and adaptation of Korean life of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it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gratitude and return. Finally, the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5 East Asian nations showed cultural differences. The paper sugges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depending on the each social support source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Korean life.

Key words : social support, gratitude, indebtedness, return, happiness, adaptation to Korean life

부록 1. 베트남 여성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과 모형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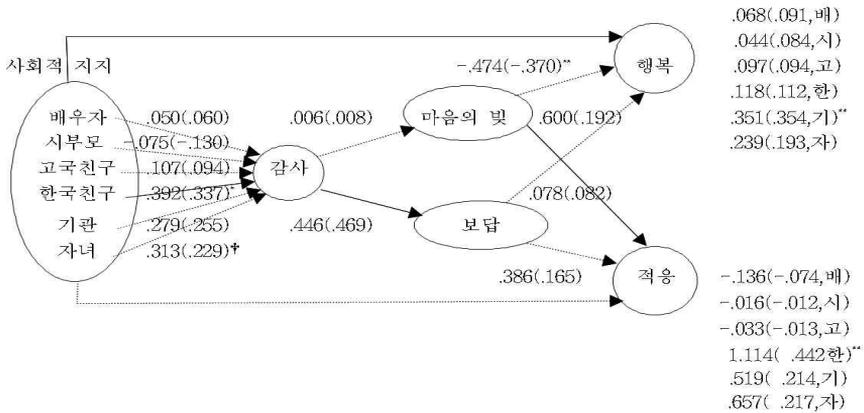


부록 그림 1. 연구모형 검증 (***) $p < .001$, ** $p < .01$, * $p < .1$

부표 1.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χ^2	CMIN/DF	RMSEA	CFI	TLI	NFI
1.122 (df , 16), $p = .327$	1.122	.055	.968	.889	.845

부록 2. 일본 여성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과 모형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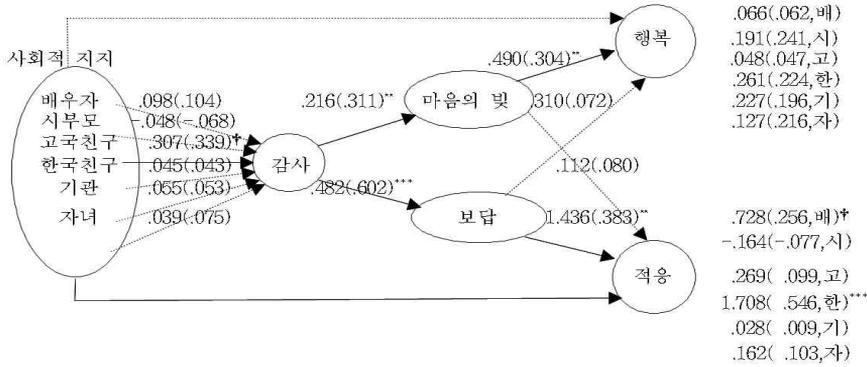


부록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 $p < .05$, * $p < .01$, † $p < .1$)

부표 2.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χ^2	CMIN/DF	RMSEA	CFI	TLI	NFI
1.318 (df , 16), $p = .175$	1.318	.084	.953	.837	.870

부록 3. 중국 여성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과 모형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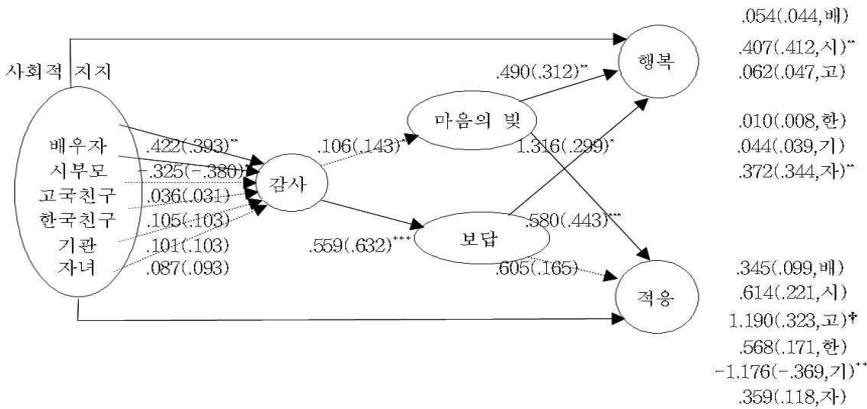


부록 그림 3. 연구모형 검증 (*** $p < .001$, ** $p < .01$, * $p < .1$)

부표 3.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χ^2	CMIN/DF	RMSEA	CFI	TLI	NFI
1.247 (df, 16), p=.223	1.247	.071	.966	.884	.884

부록 4. 조선족 여성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과 모형적합도



부록 그림 4. 연구모형 검증 (*** $p < .001$, ** $p < .01$, * $p < .05$, .† $p < .1$)

부표 4.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χ^2	CMIN/DF	RMSEA	CFI	TLI	NFI
1.527 (df, 16), p=.081	1.527	.116	.925	.743	.854

